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
	보도	2021.7.2.(금) 14:00부터	배포	2021.7.2.(금)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금융지원과장 김 정 명(02-2100-1670)	담 당 자	배 수 암 사무관(02-2100-1672) 홍 재 선 사무관(02-2100-1671)
	금융위원회 정책총괄과장 이 진 수(02-2100-1660)		윤 세 열 사무관(02-2100-1662)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이 동 훈(02-2100-2830)		황 기 정 사무관(02-2100-2832)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장 이 수 영(02-2100-2850)		윤 우 근 사무관(02-2100-2852)
	금융위원회 은행과장 김 연 준(02-2100-2950)		윤 동 욱 서기관(02-2100-2951)

제 목 : 글로벌 경기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부문 지원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금일('21.7.2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4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금리상승에 따른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과 코로나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정책 대응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 ◆ **일시 / 장소:** '21.7.2.(금) 14:00 ~ 15:00 / 영상회의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중기부, 금감원, 은행연,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금융연
(금융권)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 [별첨1] 부위원장 모두발언
[별첨2] 코로나19 금융지원 실적

[1.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한 평가 및 대응]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도규상입니다.

최근 미국의 강한 경기회복세 등을 바탕으로
조만간 국내외 경제가
팬데믹 위기에서 회복 단계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경기회복의 기대 뒷면에는
금리상승이라는 새로운 리스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국은행도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 파월의장 “앞으로 몇 달간 테이퍼링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FOMC 직후 기자회견)

그동안 이어져온 저금리 상황에 익숙해져 왔던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이제 금리상승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리 상승은 그 동안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에 기반하여
역대 최고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자산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물경기 회복과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등
전조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고 있는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부동산 시장 등은

글로벌 통화긴축 상황 전개시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급등하던 **가상자산 시장**이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은 갑자기 거래가 중단되는 등
매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국내 비트코인 가격(천만원, 업비트): [’20말] 3.2 → [’21.4.13일, 고점] 8.1 → [6.30일] 4.1

주택 등 부동산 시장 역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전례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실러교수는 지난 5월
‘미국 주택가격이 100년래 최고수준’이라며
‘비이성적 과열’을 경고한 바 있으며,

한은도 지난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금융취약성지수(FVI)가 ‘08년 금융위기이후 최고수준을 기록한
주원인으로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 FVI동향: [08.2Q] 73.6 → ... → [19.4Q] 41.9 → [20.4Q] 53.8 → [21.1Q] 58.9

‘19말대비 FVI 구성요소 변화: 자산 58.4→91.7/ 신용 27.4→30.3/ 금융기관복원력 67.3→67.6

특히,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 상승속도가
주요국의 2~3배 이상*으로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PIR상승률(19.4Q 대비 20.4Q): [한] 12.7% > [미] 6.6% > [영] 6.5% > [프] 4.8% > [일] △0.5%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수년간 지속되어 온 통화 완화기조가 바뀌는
그야말로 부동산시장에 ‘검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딱 10년 전인 2011년 기사를 검색해보면
‘하우스푸어’, ‘깡통전세’ 문제가 가장 심각한 이슈로 등장합니다.

2000년대 초부터 2008년 글로벌 위기 직전까지 폭등했던
부동산 가격이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에 투자한 분들이
주택가격 하락과 이자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은 뼈아픈 시기였습니다.

버블이 끝없이 팽창할 수 없음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부동산 등의 투자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경제 전반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도록
그간의 대책들을 다시한번 가다듬고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제(7.1일)부터 확대 시행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없이 도입하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 기존 대출규제의 이행여부도 철저히 점검하고,
금융업권간 규제나 실무 적용상 차이로 인한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꼼꼼히 챙겨나가겠습니다.

금융권에서도

어제 차주단위 DSR이 확대 시행된 것을 계기로

상환능력에 기초한 대출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질없는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포스트 코로나 전환에 대응한 정책점검]

최근 우리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회복을 보이면서

위기대응 정책의 정상화 필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수준 진단 및 대응을 위한

「금융상황 점검 워킹그룹」*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등 예기치 못한 요인이 없다면,

금년 하반기에는 「회복단계」**가 본격화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전문가 참석, 3개월 마다 포워드가이던스 제시

** 워킹그룹의 상황판단 구분 : ①위기지속단계 → ②회복단계 → ③정상단계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등에서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 음식업매출 증가율(% , IBK) ①20년대바: [21.1월] △34.7 → [2월] △10.2 → [3월] 17.5 → [4월] 6.8

②19년대바: [21.1월] △35.2 → [2월] △20.7 → [3월] △15.5 → [4월] △13.9

따라서 정부는 회복이 더딘 취약차주의
‘유동성 절벽’(Cliff-edge effect)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공급(175조원+@ 프로그램)과
신용등급 하락부담 경감방안(5.7일 발표)*,
금번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7.1일 발표, 3.9조원)** 등을 통해
선별적 지원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 ①신용등급평가시 회복가능성 충분히 반영 ②등급하락시에도 이자부담 최소화

** ①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3.3조원) ②손실보상 법제화(0.6조원) 등

현재까지 은행권의 신용평가 결과를 보면
소상공인 등 중소기업의 등급하락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나,

* 6.14일 은행권 자체평가 완료 ☞ ①등급하락 중소기업 작년대비 감소(32→24%)
②하위 50% 등급비율 작년대비 감소(32→30%)

7월부터 소규모 자영업 등의 평가가
본격 실시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신용평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발표한대로 저신용 회사채·CP 매입 SPV*의 매입기간도
연말까지 연장(7.13일→12월말)해 나가겠습니다.

* 우량채 1.2조원, 비우량채 2.4조원 등 총 3.6조원 매입으로 자금시장 안전판 역할 수행

[3. 당부말씀 및 맺음말]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내외에서 본격적인 경기회복의 신호와 함께

그 간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환경이 변화해갈 것이라는 예상이
점차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와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을 다시한번 드리며,

정부도 준비된 대응체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6.25일 기준)

-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6.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6.13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52조원

- 그 밖에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44.8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21.7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②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6.25일 기준)

- 총 368.7만건, 418.4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69.4만건)-소매업(58.5만건)-도매업(47.5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74.3조원)-도매업(57.5조원)-
·화학 제조업(31) 順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유형별) ·보증 총 205.3만건, 148.9조원 실행되었고,
기준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163.3만건, 269.5조원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95만건/213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69.5만건/203.9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
할 경우 출처를 표기
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주요 금융지원 실적

①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자금 신규 공급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종료, '20.2.7일~12.31일) * 기은 초저금리, 시중은행 이차보전,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 	16.4조	14.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0.0조	6.7조
기존 프로그램('20.5.25일~)	7.0조	6.13조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21.1.18일~)	3.0조	0.52조
②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확대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대출·보증 지원('20.3.16일~) * 수은·산은·기은·신보 금리·한도 우대 대출, 특례보증 등 	37.8조*	44.8조
③ 회사채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지원	목표금액	지원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증권사 유동성 지원(종료, '20.3.24일~12.31일) * 한은 RP 매수, 증권금융 대출 	5.0조	10.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채·CP·전단채 차환·인수 지원('20.3.30일~) * 산은 회사채 신속인수 및 차환지원, 산·기은 CP·전단채 차환지원 	6.1조	2.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신용 회사채·CP매입 지원('20.7.24일~) 	20.0조	3.6조 (35,68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 피해 P-CBO('20.4.1일~) 	11.7조	5.4조

* 수출입은행 '21년 신규지원 목표금액(8.7조원) 반영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프로그램(4차 비상경제회의(4.8.) 발표)

- 개별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지원(20.4.29일~) : 14,758건 (1,311억원)
- 신복위 채무조정 지원(20.4.29일~, 접수기준) : 11,859건 (4,875억원)
- 캠프 개인연체채권 매입(20.6.29일~) : 10,292건 (674억원)

□ 금융권 지원실적 집계(업종별·지원유형별)

(단위 : 건, 원)

음식점업	소매업	도매업	기계·금속제조업	운수·창고업
69.4만건 22.2조원	58.5만건 28.4조원	47.5만건 57.5조원	25.1만건 74.3조원	17.9만건 13.9조원
여행레저업	섬유화학 제조업	숙박업	자동차 제조업	기타
12.5만건 7.3조원	10.8만건 31조원	4.2만건 9조원	4.4만건 24.3조원	118.5만건 150.4조원

구 분 ¹⁾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제2금융권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대출	신규	47.6만	56.3조	116.3만	69.3조	652건	589억	163.9만	125.6조
	만기연장	25.3만	68.1조	53.3만	134.7조	4.1만	1.4조	82.7만	204.2조
보증	신규	41.5만	23.3조	-	-	-	-	41.5만	23.3조
	만기연장	80.7만	65.3조	-	-	-	-	80.7만	65.3조
합 계 ²⁾		195만	213조	169.5만	203.9조	4.1만	1.5조	368.7만	418.4조

1) 정책금융기관 대출보증, 시중은행 대출실적에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 ①, ② 포함

2) 기타 금융지원 실적(이자납입유예, 금리인하, 수출입금융 등) 제외